

## 中企 정보화 지원「성과중심」으로 전면 개편

### - 사전진단 통해 개별 기업 적합 과제 발굴, 맞춤형으로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및 성과제고를 위해 현행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07년부터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제로 전면·개편,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4개 정보화지원사업을 사업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별 지원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정부 지원시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한번 신청만으로 자사에 적합한 과제를 분석, 설계, 시스템구축 등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이번에 개편하는 정보화 지원사업의 개편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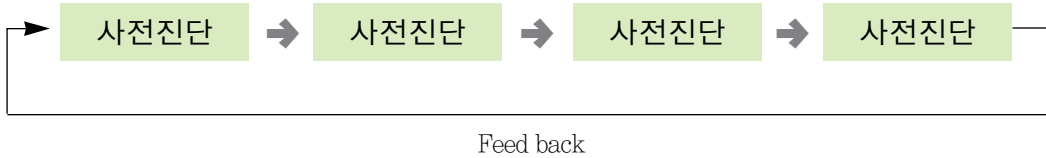
첫째, IT전문가가 기업을 사전 진단하여 의욕과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 기업현실에 적합한 정보화 과제를 도출하여 맞춤형 시스템구축을 지원한다.

- ① 먼저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정보화 필요성, 추진여건, 정보화 구축 이후 사후관리 가능여부 등을 진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②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IT전문가가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 의견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 지원과제 및 지원범위를 분석·도출.
- ③ 기업별로 도출된 정보화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50% (5천만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 다만, 사업의 투명성 및 효과를 위해 '성공조건부 지원제도'를 도입, 사업 완료 후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기업에 대해서만 소요비용을 지원.

둘째, 중소기업 정보화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관리 등 상시지원을 위한 정보화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시스템 운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기업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정보화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정보화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절차 ]



중기청 송재빈 기술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사업 개편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활용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확대되고, 지원시책의 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개편 전·후 주요 변경사항 ]

	현 재	개 편 후	효 과
사업신청	• 사업별 신청	• 일괄접수(자가진단)	수요자 중심
현장진단	• 적격여부진단(1일)	• 지원과제 도출(10일)	만족도제고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IT기업)	• 현장진단 전문가	투명성제고
지원조건	• 50~75%(5천만원)	• 50%(5천만원)	자부담증액

'07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06.10.11 ~ 10.25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www.smba.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중기청은 아울러 사업 홍보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06.10.17 ~ 10.20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애로를 지원하고, 정보화 추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계획수립 및 지원과제를 도출한 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5천만원 한도)까지 정부가 지원한다.